

“역사와 지리의 민족화”:  
알사스-로렌을 둘러싼 독일과 프랑스의 역사서술 비교 1871-1918\*

박용희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K C I

---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과제번호: KRF-2004-072-AS3013).

## 1. 들어가며

오늘날에도 민족간 경계지역을 둘러싼 분쟁지역은 전 세계에 걸쳐 산재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도 간도문제와 독도문제가 동아시아 3국의 분쟁가능지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최근 전개되고 있는 갈등의 양상은 일본의 ‘새 역사 교과서’,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야기되기 시작한 것으로 아직 직접적인 영토분쟁으로 전화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해당 지역 ‘역사와 지리의 해석’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국면으로 전화할 소지가 다분히 존재함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간도, 독도문제가 최근 동북아에서 쟁점이 되거나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지역이라면 ‘알사스-로렌’(Alsace-Lorraine, 독일어로는 ‘엘사스-로트링겐’ Elsaß-Lothringen)지방은 과거 유럽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쟁지역의 하나였다. 이 지역을 둘러싼 독일과 프랑스간의 분쟁은 1871년 프로이센에 의한 이 지역의 강제합병으로 시작되어 1945년 2차 대전의 종결과 함께 프랑스로 완전히 재편입될 때까지 지속되었다.<sup>1)</sup> 그 양상 역시 무력적 충돌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정치가들은 경쟁적으로 이 지역에서의 행정과 통치의 민족적 체계를 구축하려 하였고, 예술가들은 민족정서 발굴 및 함양을 위해, 역사가들은 이 지방을 각기 자기 민족사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 글은 이런 경쟁적 노력 중에서도 특히 양국 역사학자들의 대립적 역사인식이 초래한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물론 이 글에서 다룰 내용은 유럽의 두 강대국 독일과 프랑스간에 전개된 양상이며, 그 역시도 양국간 상호 관계의 긴 역사에서 한 단면에 지나지 않는다.<sup>2)</sup> 아울러 시기적으로도 이 글은 양국 역사가들의 갈등이 고조되는 1871년부터 1918년 1차 대전의 종결 시기까지에 한정될 것이다. 따라서 알사스와 로렌을 둘러싼 독일과 프랑스간의 갈등은 다른 분쟁지역의 경우와 직접 비교될 수 없는 역사적 특수성을 가진다. 이 글은 유럽의 역사적 사례에 일차적으로 주목할 것이며, 결코 이를 통해 분쟁지역 일반에 대한 보편적 시사점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글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지역사를 둘러싸고 민족간 대결이 불러올 수 있는 파국적 양상을 살피는데 있다. 이런 점에서 유럽의 전형적인 분쟁지역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피는 것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양상과 비교점을 찾고자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그를 위해서는 유럽사적 맥락에서 나타난 민족에 대한 경쟁적 언설과 그 배타적 성격을 동아시아적 상황과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은 너무나 방대하며, 이 글에서 다루게 될 알사스-로렌을 둘러싸고 전개된 양상에 국한할지라도 짧은 지면에 양국 역사학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은 일개 논문이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알사스-로렌문제에 국한하여 프랑스와 독일 양국 역사가들의 태도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지향하면서도, 그 대표적인 역사가들에 대한 제한적 분석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 2. 알사스-로렌의 역사와 세 가지 범주

- 1) 원래 알사스와 로렌은 각각 독립된 지역으로 역사적 연관관계가 없는 곳이었다. 두 지역이 하나의 ‘알사스-로렌 문제’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870/71년 보불전쟁과 함께였다. 이 지역의 오랜 역사에 대한 개괄을 위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할 수 있다. (Michael Erbe 2000; Parisse 1984),
- 2) 양국간 상호 관계 전반의 문제에 대한 포괄적 이해는 이 글의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다. 이런 포괄적 이해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19세기 양국 역사가들의 상호인식에 대해서는 이미 다수의 연구가 있다. (Sieburg 1954; Gödde-Baumanns 1971; Jeismann 1992),

근대 역사가들의 역사 연구가 국민국가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었다는 주장은 결코 새로울 바가 없다(Giesen 1994; 기어리 2004). 주로 근대 국민국가를 연구 단위로 삼아 그 역사의 연속선을 추적해 온 역사학자들의 작업이 학술적 중립성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추구하는 동시대인들의 현실 정치적 요구와 밀접히 결합될 수 있다는 사실은 19세기 독일과 프랑스의 역사가에게서도, 그리고 오늘날 동아시아의 역사가들에게서도 자명한 일이다.

일찍이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은 민족을 고정되고 불변의 역사적 실체로 보기보다는, 지극히 유동적이고 변화하는 역사, 특히 근대적 발전과정에서 생성된 “상상의 공동체”로 파악한 바 있다(Anderson 1983: 6). 그리고 역사연구가 이런 “공동체”를 의식적으로 “상상”하고 구성해 내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해왔음은 최근 연구에 의해 속속 밝혀지고 있다(Conrad 2005).<sup>3)</sup> 물론 이런 경향은 역사연구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sup>4)</sup> 그러나 특히 역사학은 민족적 정체성이 강하게 요구되어지는 시기에 이를 효과적으로 ‘고안’해 낼 수 있는 수단이었다.

이 글에서 다루게 될 프랑스와 독일의 역사가들이 알사스와 로렌지방을 둘러싸고 경주했던 노력 역시 민족정체성 확립을 지향하면서 진행된 “민족사 만들기”의 일환으로 파악될 수 있음은 명백하다. 그들은 이 지역의 역사를 각기 자민족사적(自民族史的) 관점에서 새롭게 발견 및 정리하고, 나아가 각기 역사적 연속에 대한 상(像)을 만드는 방식으로 국민국가를 위해 봉사하였다. 물론 양국의 역사가들이 지역사를 민족사로 발견하는 방식은 다양했다. 특히 알사스와 로렌의 역사가 각각의 민족사 영역으로 발견되기 위해 재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여러 범주에 걸쳐 있었으며, 실제 역사가들은 이 지역의 (1) 종족적 기원, (2) 정치적 귀속의 역사, (3) 문화적 동질성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경쟁하고 있었다. 양국 역사학자들의 경쟁적 ‘민족사 만들기’ 행적을 추적하기에 앞서 이 세 가지 범주와 연관시켜 알사스와 로렌의 역사를 짧게 개관하고자 한다.

### 종족적 기원

지금의 알사스와 로렌에 해당하는 지역이 역사무대에 등장한 것은 기원전 58년 율리우스 시저의 지휘 하에 이루어진 로마의 갈리아 정복 이후였다(Erbe 2002: 18). 원주민인 갈리아인들 [프랑스에서는 “골인(Gaule)”이라 지칭되는 인종 - 필자] 을 정복한 로마인들은 이곳에 변방(“Germania Superior”)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로마제국은 기원후에 들어 동쪽으로 팽창을 멈추었으며 리메스(Limes)라는 국경선을 두고 게르만 부족들과 대치하는 상태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쾰른, 트리어, 마인츠, 레겐스부르크와 같은 도시가 만들어지고 농촌 거주지 및 교통망을 가진 하나의 지역 공간의 기초가 형성되어 갔다.

그러나 기원 후 3세기 소위 민족이동이 시작되면서 게르만 부족들이 로마인들 거주 지역으로 넘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그 선두에 섰던 사람들 중 한 부류는 소위 알레만인

3) 스위스사를 둘러싼 프랑스, 독일, 스위스 역사가들의 예를 분석한 다음 글은 실증적 연구의 좋은 예이다. Guy P. Marchal, (1998), “Das Mittelalter als Identitätsfolie in Frankreich, Deutschland und der Schweiz”, Schweizerisches Landesmuseum (ed.), *Die Erfindung der Schweiz 1848-1998. Bilderentwürfe einer Nation*, Zürich, 146-157.

4) 한 논문집은 자연과학과 민족의 상호관계에 대해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 책에는 지리학에 의해 발견되는 알사스와 로렌의 민족지리 문제를 다룬 논문을 실고 있다. Iris Schröder, (2002), “Die Nation an der Grenze. Deutsche und französische Nationalgeographien und der Grenzfall Elsaß-Lothringen”, Ralph Jessen/ Jakob Vogel (Hrsg.), *Wissenschaft und Nation in der europäischen Geschichte*, Frankfurt a.M., 207-234.

(Alemannen)이라 알려진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은 곧 로마인들을 라인강 이하 지역으로 몰아내고 자신들의 터전을 마련하였다.<sup>5)</sup> 이어서 이 지역의 역사에 등장하는 또 다른 게르만 부족은 프랑크족이었다. 역시 게르만의 여러 소부족들의 연합체로 추정되는 이들은 라인강 하류지역에 나타나 남서부지역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으며, 5세기 후반 프랑크 족의 왕 클로드비히 아래에서 알레만인들을 굴복시켰다. 이로써 라인상류 지방은 프랑크왕국에 속하게 되었으며, 이후 왕국의 정치적 중심지가 라인강 하류지역으로 이동하였으나 상류지역은 독자적 전술적 중요성을 가지며 하나의 문화공간을 형성할 수 있었다(Pletsch 2002:9).

이처럼 이 지역을 둘러싼 기원의 문제는 현대 민족주의자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하나의 기원에서 출발하여 하나의 민족으로 발전해 간 단순구조가 아니었다. 그것은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속에서 전개되어 갔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날 알사스와 로렌인은 고대부터 자체의 역사를 가진 소수민족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결코 독일인이나 프랑스인과 동일시되지 않는다(Ludwig 1995: 140f.). 아울러 흑림지대(지금의 독일 서남부 삼림지대)와 보쥬산맥(Vorges, 프랑스 동북부 중앙산맥지대) 사이에 위치한 이 지역은 처음부터 경계지역으로서의 성격을 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Pletsch 2002: 6). 그러나 19세기 민족주의 역사가들에게 단일한 종족적 기원에 대한 주장은 자신들의 민족사 확립을 위해 필수적인 논리의 하나였다.

### 정치적 귀속의 역사

알사스와 로렌을 둘러싸고 양국 역사가들이 발견한 또 하나의 민족사 확립을 위한 근거는 오랜 기간 혼전을 거듭했던 지역의 정치사였다.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유럽 내 국가적 원형의 형성시기로 파악되는 프랑크제국의 건설과 이어지는 9세기 중반 제국의 분열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Mieck 1993: 199).

로렌은 855년부터 샤를마뉴의 손자 로타르(Lothar)의 동명이자 둘째 아들인 로타르의 영지로 중부제국의 북부지역에 해당한 지역이었으며, 알사스 역시 로트링겐의 일부였다.<sup>6)</sup> 로타르의 사망 이후 이 지역은 870년 메르센 조약, 880년 리베몽의 화친조약, 921년 독일 왕 하인리히와 프랑스왕 샤를르 사이의 우호조약에 의해 동프랑크제국에 귀속되었다. 따라서 이 지방에 대한 선점권은 동프랑크제국에 있었으며, 13세기에 이르기까지 이런 상태는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점은 독일 역사가들로 하여금 이 지역에 대한 선점권을 주장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12세기부터 이곳은 부르군드 왕국(프랑스어로는 부르고뉴), 교황령 등의 새로운 권력중심이 생겨나면서 점차 독일제국으로부터 분리되어 갔다.<sup>7)</sup> 이 지방이 프랑스화하기 시작한 것은 15세기 백년전쟁의 종결과 함께 시작된 프랑스의 공격적 동부 국경정책 이후였다. 전쟁의 종결과 함께 로렌지역은 곧 프랑스에 의해 군사적으로 점유되었으며, 알사스 역시 1633년부터 프랑스 군대가 진주하고 곧이어 루이 14세 시기에 프랑스에 귀속되는

5) 그러나 19세기 독일민족사의 확립과정에서 독일인과 연관관계가 끊임없이 주장되는 이 알레만인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체가 밝혀진 바 없다. 아마도 서게르만 종족들의 집단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중부 엘베강 유역에서 출발한 게르만종족의 연합체로 주장되기도 하며, 또 때로는 로마인에 대항한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주장되기도 한다.

6) “로렌”은 “로타르의 영지(Lothari regnum)”란 명칭에서 생긴 로트링겐(Lothringen)의 불어식 발음이다. 반면 “알사스”는 알레만인 시대에 까지 거슬러 오르는 지역명칭으로 알려지고 있다(Pletsch 2002: 7).

7) 동프랑크제국이 독일제국이란 의미의 “Regnum Teutonicorum”이란 명칭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11세기부터였다.

운명을 맞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세기에 들어서도 상황은 상당히 유동적이었다. 마침내 이 지역이 완전히 프랑스로 귀속되게 된 것은 프랑스혁명과 함께였으며, 나폴레옹 전쟁 이후 구체제로 복귀를 선언한 메테르니히체제 하에서도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물론 1870년 프랑스-프로이센전쟁과 함께 알사스의 대부분 지역과 상부 로렌의 일부 지역이 다시 프로이센에 합병되면서 상황은 역전되었다. 이어지는 1871-1879년 사이 이 지방에서는 행정체제가 프로이센을 모델로 하여 재편되는 등 급격한 프로이센화가 추진되었다.<sup>8)</sup> 그뿐만 아니라 ‘역사와 지리의 민족화’라는 어구가 말해주듯이 이 지역에서는 급격한 독일민족화가 강요되었다.

그러나 이런 혼전의 역사는 양국 어느 쪽에게도 이 지역에 대한 정치적 주권 요구를 위한 확실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역사가들은 각기 중세 이래 이 지역에 대한 정치적 선점의 역사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영토소유의 합법적 근거를 도출하려 하였다.

### 문화적 동질성

정치사와 아울러 알사스와 로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문화적 영역에서 전개되었으며, 무엇보다 그것은 언어의 발전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또한 이런 갈등의 배경에는 문화는 정치적 귀속의 문제에 비해 훨씬 오래되며, ‘결코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표식이자 가장 깊숙이 내재한 실체’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특히 알사스, 로렌의 문화적 동질성에 대한 주장은 독일 역사가들의 민족주의에 주로 내재하고 있었으며, 그 배경에는 게르만적 동질성에 대한 요구라는 위험한 인종주의가 숨어있었다.

일반적으로 알사스어는 게르만어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다. 알사스어는 공식적으로 알레만인들이 리메스를 넘어 와 라인상류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언어이다 (Pletsch 2002: 8). 그 결과 라틴어가 공식어인 보슈산맥 좌편의 갈리아지방과 알레만어적 기원을 가지는 라인강 상류지역 사이에 언어상 차이가 있었음은 명확하다. 또한 근대에 들어 프랑스의 점령기에도 이 지역에서 언어적 동질성은 비교적 위협받지 않았다. 물론 프랑스 혁명 그리고 19, 20세기에 걸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양국의 강압적 언어동화정책으로 알사스의 문화적 정체성에 위협이 가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알사스의 언어적 동질성은 유지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에서는 언어만이 정체성의 유일한 요소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은 확실하다. 예를 들어 언어와 문화의 동질성에 근거하여 게르만적 정체성을 주장하는 독일역사가에 맞선 프랑스 역사가들은 갈리아나 로마시대로부터 이어지는 문화적 동질성을 거론하고 있었다. 물론 이런 문화적 동질성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실 문화적 정체성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라 해야 옳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역사는 1871년 이후 4차례에 걸친 국가소속의 교체 속에서 정책적으로 강제되기도 했다.<sup>9)</sup> 이를

8) 물론 그럼에도 알사스와 로렌은 결코 독일제국의 연방국가로 편입되지는 않았다. 이는 주민들의 대다수가 프로이센에 의한 합병에 반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실제 18만의 인구가 독일화를 거부하였으며, 그 중 5만이 프랑스로 귀화하였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따라서 프로이센으로의 귀속에도 불구하고 양 지역은 1879년 독자적 정부를 건설하였고, 제국의회 선거에서도 처음에는 친프랑스파가, 후에는 분리독립파가 다수를 획득하였다(Wehler 1970).

9) 반전을 거듭하는 양국의 이 지역에 대한 점령과 함께 강제적 문화정책, 언어정책은 지역문화에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따라서 오늘날 전통적인 알사스어는 이 지역에서도 소수의 언어로 전락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알사스를 둘러싼 정체성의 문제는 언어의 문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물론 종족적 민족주의와 연관된 언어의 문제를 거론하는 경향은 더 이상 대세가 아니며, 대신 언어 내지 언어정책의 변화와 긴밀히 연관된 정

고려한다면 실제 이 지역에서 진행된 문화의 변천사는 연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19세기 민족주의 역사가들은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을 이 지역에 대한 민족사적 발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었다.

### 3. 독일역사가들의 알사스와 로렌에 대한 인식

#### 3.1 프랑스-프로이센전쟁과 소독일적 민족의식

프랑스와 독일 역사가들의 상호 인식이 적대적 상호관계로 인해 대립적이었다는 사실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sup>10)</sup>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 지식인들의 적대적 상호 인식이 단순히 적대적 타자관(他者觀)의 발현이란 점을 넘어 오히려 자기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점은 최근에야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Jeismann 1992).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웃민족에 대한 증오에 가까운 적대의식을 기반으로 역사가들이 자민족의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영역을 확정하는 일에 전념하였다는 점은 최근의 연구에서 점차 확실해지고 있다(Conrad 2002).

그러나 사실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도 유럽 민족의 역사와 지리는 확정된 것이 아니었다. 특히 알사스와 로렌지방과 같은 변경지역의 역사와 지리를 자민족의 것으로 주장하는 일은 프랑스나 독일 어느 쪽에게도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독일의 입장에서 이 지역은 이미 일반적으로 제국의 영역바깥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따라서 1870년 프랑스-프로이센전쟁이 발발하기 이전 대부분의 독일 지식인들은 알사스와 로렌을 더 이상 독일영토로 만들 필요를 제기하지 않았다.

당시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한 통일을 주장하던 대표적 인물이었던 역사학자 트라이치케(Heinrich von Treitschke) 역시 다를 바 없었다.<sup>11)</sup> 1865년 프라이부르크에서 출발하여 알사스를 여행한 그는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서 현지의 문화가 독일문화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물론 그는 알사스의 프랑스화를 인정하기 보다는 이 지역이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중간 매개자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독일문화가 약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필자] 이들은 혼혈족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그들이 프랑스와 독일문화 사이에서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하면서 우리로부터 완전히 멀어지지 않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Treitschke 1913: 404)”.

그러나 그는 이 지역이 독일로부터 분리된 것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기 다른 한 논문에서 그는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가 제국에서 빼앗아간 땅”이 이미 독일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이는 수백 년 이래 상실한 땅 알사스 및 로렌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것이었다(Treitschke 1867: 554).<sup>12)</sup>

---

체성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다음 책을 보라. Trouillet Bernard, (1997), *Das Elsaß - Grenzland in Europa. Sprachen und Identitäten im Wandel*, Köln.

10) 독일 역사학계의 프랑스관에 대한 개괄적 정리를 위해서는 다음 글도 참고할 수 있다. (Sieburg 1987).

11) 작센왕국 드레스덴의 귀족가문 출신이었던 트라이치케는 출신배경을 등지고 프로이센 민족주의자가 되었다. 그의 프로이센에 대한 기대는 프로이센만이 독일민족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세력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의 정치관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할 수 있다. (Bußmann 1981; Dorpalen 1972).

12) 1871년 프로이센에 의한 강제합병이 추진되었을 때에도 다수의 자유주의자들에게 알사스와 로렌은 회복된 “민족의 땅”이라기보다는 “통일의 저당물”이자, “숙적”에 대한 “승리의 상징”이었을 따름이다. 심지어 제국의 알사스정책의 폭력성을 비판하는 목소리 역시 드물지 않았다. 자유주의 정치가이자 법학자였던 로버트 몰(Robert von Mohl)은 “사실판단에 대한 미숙한 자기오만과 무지”가 알사스와 로렌인들의 희망을 짓밟았다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었다(Wehler 1970: 18).

그러나 이런 온건하고도 현실적인 태도는 프랑스-프로이센전쟁의 발발과 함께 민족주의적 요구에 의해 파문하게 된다. 갑작스레 지식인들의 알사스와 로렌에 대한 태도 역시 변하기 시작했다. 그 동안 알사스가 프랑스에 속한 현실을 인정해 오던 트라이치케는 자신의 생각을 번복하고 나섰다. 1870년 7월 25일 “검은 독수리의 시(Ein Lied vom Schwarzen Adler)”라는 잔뜩 멋을 부린 시(詩)는 “스트라스부르크의 성당을 다시 찾아오자. 독일의 강 [라인강을 의미함 - 필자] 을 해방시키자”라는 구절을 담고 있다(Treitschke 1879: 270).

이후 알사스와 로렌은 ‘독일적’이기 때문에 독일에 속해야 한다는 식의 목소리가 공공연히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국수적 태도를 주저하지 않았던 트라이치케로부터 비교적 자유주의적 성향의 지식인들이었던 둔커(M. Duncker)나 다른 광범한 식자층에 의해 공유되고 있었다.<sup>13)</sup> 이런 역사가들의 태도변화는 우선 역사서술과 역사가들의 정치적 지향이란 점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독일 역사가들이 보인 정치적 및 실용적 태도는 일찍이 드로이젠 이래 프로이센 학파의 “정치적 역사가들”로부터 명백히 드러나는 것이었다.<sup>14)</sup> 이들은 프로이센 주도 하의 소독일적 민족국가를 민족사적 목표로 상정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이를 역사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해 추진해야 하는 역사학의 민족교육적 임무를 역사학이 본연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과학적 방법론과 상반되는 것으로 파악하지 않았다(Fehrenbach 1970: 201). 정치적 이해와 역사학의 학문적 지향이 동시에 추구되고 실현될 수 있다고 본 이들 프로이센 역사가들은 1871년 프로이센이 프랑스에 대해 커다란 정치적 성공을 보였을 때 학문 역시 이에 부응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별 거부감 없이 수용하였던 것이다.

### 3.2 ‘문화민족’에 대한 인식과 알사스-로렌

그러나 이들 역사가들의 민족주의적 태도는 단지 정치적이며 현실적인 요구에 의해서만 촉발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본질적인 것은 독일이 “본연적”으로 민족적 동질성을 가진다는 생각이었다.<sup>15)</sup> 일찍이 18세기 말 헤르더(Johann Gottfried von Herder) 이래 언어와 문화의 동질성에 기반한 독일민족이라는 의식이 공고해지고 있었다. 나폴레옹의 점령기를 경험하였을 때 지식인 사회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를 토대로 한 독일에 대한 믿음은 의심할 바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대(對)나폴레옹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자유주의자 에른스트 모리츠 아른트(Ernst Moritz Arndt)는 “하나의 언어가 그 경계를 넘지 않고, 그 안에서 [...] 하나의 정부에 의해 조망 및 관리되는” 독일이 “행복의 진정한 단위”임을 주장하고 있었다(Alter 1994: 190f.).

이런 확신에 입각하여 알사스를 독일민족의 땅으로 파악하는 경향은 19세기 초반에

13) 트라이치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둔커나 다른 자유주의자들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하라. (Walter Bußmann 1981: 354f.) 그 밖에도 시벨(Sybel), 뮌젠(Mommsen) 등의 역사가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하라. (Hans-Ulrich Wehler 1970: 21).

14) 특히 19세기 프로이센의 소독일학파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하라. Hans Schleier, (1969), “Die kleindeutsche Schule (Droysen, Sybel, Treitschke)”, Joachim Streisand (Hrsg.), *Die deutsche Geschichtswissenschaft vom Beginn des 19. Jahrhunderts bis zur Reicheinigung von oben*, Berlin, Bd.1., 271-310; Bernd Faulenbach (Hrsg.)(1974), *Geschichtswissenschaft in Deutschland*, München.

15) 독일 역사가 마이네케(Friedrich Meinecke)는 독일민족을 “문화민족(Kulturnation)”으로 정식화하였다. Friedrich Meinecke, (1963), *Weltbürgertum und Nationalstaat*, München, Werke, Bd.V, p.10ff. 독일의 문화민족에 대한 국내 소개글로는 다음 글을 참조하라. 고유경, (2004), 「‘문화민족’과 ‘국가민족’ 사이에서. 통일이전 독일 민족형성의 길」, 『근대 계몽기 지식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편, 소명출판, 331-362.

이르러 보다 일반화되고 있었다. 아른트는 이를 라인강과 그 지역에 대한 요구로 표현했다. 그에 따르면 “라인강은 독일강이지만, 그것은 독일의 경계가 아니”었다. 이 말은 라인강과 그 인접지역 모두가 독일땅이란 의미를 담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라인강의 양편 언덕과 주변 지역은 이전에 그러했듯이 독일땅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떨어져 나간 땅과 인구는 조국에 의해 다시 정복되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Alter 1994: 190f.).

이런 전통과 이어지면서 19세기 독일 역사가들은 독일사 속에서 게르만에 이르는 종족적 기원을 “발견”하고자 하는 의도를 공공연히 하고 있었다. 오늘날까지 계속 언급되는 『독일 헌정사』를 쓴 게오르그 바이트츠(Georg Waitz)는 1권에서 게르만 초기역사에서 타키투스의 게르마니아에 이르는 시기를 다루면서 독일민족의 헌정적 특징을 정리하기도 했다(Brühl 1990: 19f.). 아울러 1848년 하인리히 뤼커트(Heinrich Rückert)는 동고트의 알라리히가 3만 독일군을 이끌고 로마를 점령했다고 서술하면서 동고트를 독일민족이라 보았으며, 476년 독일제국의 건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저명한 고대사가 테오도르 몸젠(Theodor Mommsen) 역시 게르만인을 독일인과 동일시함으로써 독일민족에 대한 신화를 낳는 기초를 확립하였다(Brühl 1990: 20).

이런 게르만민족에 기반을 둔 독일의 문화민족에 대한 인식은 곧 알사스-로렌의 문제를 바라보는 독일 역사학자들의 논리적 근거로 작용했다. 당시 어떤 정치적 언론인이나 역사가들도 더 이상 공식적으로 알사스와 로렌이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독일민족에 속한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았다.<sup>16)</sup> 트라이치케가 『프로이센 연보(Preußische Jahrbücher)』에 기고한 「우리는 프랑스로부터 무엇을 요구하는가?」라는 한 기사는 이를 잘 웅변하고 있다. 이 글에서 그는 전전(戰前)에는 결코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던 ‘독일적 기원을 가진 알사스’라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여러 가지 요구를 제기하기 시작했다(Treitschke 1870: 369f.). 우선 그에 따르면 알사스와 로렌이 근대에 들어 약 200여 년간 프랑스에 속해 있었지만 사실 과거 천 년에 걸쳐 독일땅이었다. 또한 그는 이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프랑스에 의지하게 하는 근거를 제거함으로써 로만화(Verwälschung)로부터 성공적으로 탈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그는 알사스와 로렌이 프로이센에 속해야 하는 이유를 프로이센만이 유일한 민족통일의 주역일 수 있다는 논리에서 찾았다. 그에 따르면 따로 떨어져 나가려는 지역을 묶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유일한 힘은 프로이센이었다.

트라이치케는 알사스 합병의 근거를 역사적 근거와 아울러 현실적인 요구와 결부시켜 이해하고 있었다. 이때 그의 태도를 근원적으로 결정하고 있었던 것은 알사스가 “본질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 편”이라는 인식이었다. 물론 그는 왜 알사스인들은 역사, 문화, 언어가 독일에 기원함에도 불구하고 독일인이 되기를 거부하는가를 설명해야 했다. 이에 대해 트라이치케는 알사스인들이 프랑스인들의 국수주의에 의해 “병들었다”고 주장하였다. “독일적 삶의 원천”이 “오염(verschlammt)”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것은 프랑스적 국수주의에 의해 “완전히 결판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가 가진 희망의 단초였다(Treitschke 1870: 371). 그리고 이런 논리를 따른다면 민족은 수 세대를 잇는 포괄적인 고리였으며 결코 단절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독일의 지성계가 이렇게 모두 문화민족 논리에 입각하여 알사스-로렌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일찍부터 문화민족 논리에 대한 이견은 있었

16) 이 시기 관련연구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는 다음 책을 보라. E. Kolb, (1989) *Der Weg aus dem Krieg. Bismarcks Politik im Krieg und die Friedensbahnung 1870/71*, München, p.113-194.



다. 막스 베버(Max Weber)는 헤르더 이래 제기되어온 문화민족 논리를 반박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주저인 『경제와 사회(Wirtschaft und Gesellschaft)』에서 알사스와 스위스의 예를 통해 언어공동체가 민족의식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가 아님을 밝히고 있었다(Wirtschaft und Gesellschaft 237). 오히려 그는 한 정치적 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해 가지는 패권에 대한 요구가 민족의식의 형성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sup>17)</sup>

이런 문화민족 논리의 허구성에 대한 인식과 아울러 현실정치에 대한 고려 속에서 알사스 문제에 대한 제국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다. 사회민주주의자 아우구스트 베벨(August Bebel)은 독일제국의회 연설에서 민족논리에 입각한 알사스-로렌의 영유를 명확히 반대하였다. 그는 “이 땅들을 민족이론을 가지고 바라보고 따라서 민족국가를 위한 원래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제시하려 한다면, 그래서 모든 나라가 과거 수백 년 전 혹은 그 이전에 자신의 땅에 속했던 것을 어떤 조건 하에서 재정복할 권리를 가진다고 한다면 독일은 영원한 전쟁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었다(Alter 1994: 204f.).<sup>18)</sup>

그러나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종족적 기원과 문화적 동질성의 논리는 독일 역사가들의 민족사 인식의 전제가 되는 것이었다. 알사스와 로렌은 근대사의 짧은 기간에 프랑스에 속하기는 했지만, 원래 독일민족의 땅이었다. 이런 인식에 따라 독일민족에의 양 지역 귀속이 확실한 사실이었다고 여겨지는 고중세(古中世)에 대한 연구를 강조하고, 양 지역을 독일민족의 역사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경향이 공고해 지기 시작했다.

연구는 주로 독일제국의 역사를 다루는 과정에서 양 지역이 프랑스에 의해 강탈된 것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논리에 따르면 프랑스-프로이센전쟁과 함께 이루어진 알사스-로렌의 합병결정은 절대왕정이래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에 의해 강탈된 제국의 영토를 되찾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었다. 이 지역에 대한 합병을 다룬 최초의 단행본을 낸 칼 야콥(Karl Jakob) 역시 이 지역을 오래된 독일의 서쪽 변경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그는 비스마르크의 합병결정을 평가하면서 오래전 상실했던 땅의 회복이란 점을 명백히 하였다(Jacob 1905: 5).

#### 4. 프랑스 역사가들의 알사스, 로렌에 대한 인식

##### 4.1 ‘국가민족’과 알사스-로렌에 대한 이해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프랑스와 독일 양국 간의 오랜 숙적의식은 양국의 상호인식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1870년 프랑스-프로이센전쟁 발발 전까지 프랑스 역사가들의 독일민족에 대한 태도가 단지 적대적이었다고 볼 수만은 없다. 오히려 다수의 프랑스 역사가들은 일찍이 18세기에 친독일적 지식인 스탈 부인(Germaine de Staël)이 보여주었던 태도를 잊지 않고 있었으며(슈말레 2006: 227f.), 심지어 독일을 “지적 및 미적

17) 이는 당시 주관적 의지가 민족을 구성하는 중요한 관건임을 주장하던 프랑스인 에르네스트 르낭(Ernest Renan)의 국가민족 이념과 유사한 것이었다(르낭 1882). 물론 이런 논리는 베버로 하여금 곧 바로 알사스의 프랑스 귀속을 인정하는 결과로 나아가게 하지는 않았다. 이는 무엇보다 그의 민족관이 현실적 국가관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베버 역시 국가적 이해에 대한 현실적 추구를 도외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설명된다. 막스 베버의 정치관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할 수 있다. (Mommsen 1974).

18) 유사한 이유에서 발트해지역 출신의 언론인 율리우스 폰 에카르트(Julius v. Eckardt) 역시 알사스-로렌에 대한 민족주의적 논조를 지지하지 않았다. 발트 독일인으로서 러시아화 정책을 경험한 그는 알사스-로렌에 대한 정책이 불려울 이웃 민족과의 적대적 관계를 직시하고 있었던 것이다(Wehler 1970: 23).

문화의 중심지”로 상정하고 있었다(Gödde-Baumanns 1971; Sieburg 1954). 가장 전형적인 예는 쥘 미슐레(Jules Michelet)나 에르네스트 르낭(Ernest Renan)과 같은 지식인들이었다.<sup>19)</sup>

또한 전쟁 이전에는 알사스와 로렌을 둘러싸고 민족주의적 요구가 강도 높게 제기된 적도 없었다. 물론 당시 가장 대중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앙리 마르탱(Henri Martin)이 저술한 『프랑스사』는 라인강을 독일과의 자연적 경계로 확정하였으며, 이 경계를 따라 형성된 민족적 정체성의 연속성을 주장하고 있었다(Sahlins 1990: 1448). 그러나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라인강을 좌우로 하여 어떤 영토의 조정을 요구하거나 평화적 공존과 화해를 깨뜨리는 어떤 행위의 가능성도 고려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전쟁과 함께 이런 전통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독일역사학자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역사학자들 역시 프랑스 민족의 운명과 알사스와 로렌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뤼스텔 드 쿨랑주(Fustel de Coulanges), 이폴리트 텐느(Hippolyte Taine) 등은 알사스와 로렌이 프랑스 민족의 땅임을 선언하는 정치적 발언을 꺼리지 않았다(Coulanges 1988: 17; Jones 1999: 94). 이들은 대부분 알사스와 로렌인들을 프랑스 민족의 일원으로 단정 짓고 있었고 프로이센의 합병정책에 맞서 목소리를 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는 “국가민족(Staatsnation)”이라 정식화된 전후 프랑스 지식인들의 아주 일반적인 논리였다(Kallscheuer 1994).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중 하나였던 에르네스트 르낭(Ernest Renan)은 1882년의 『민족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한 연설에서 “민족에의 귀속은 매일 매일의 국민투표”라고 주장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의지와 민족에로의 귀속을 연관짓고자 했다(르낭 1882: 17). 이 논리에 따르면 특정의 역사적으로 형성된 영역의 인구들이 동일한 국가소속감을 가진다면 그것은 곧 하나의 거대한 정치적 연대공동체로 민족에 대한 소속감을 가진다는 것이었다.

이로부터 프랑스의 ‘국가민족’으로서의 이미지는 독일의 ‘문화민족’과 대비되어 프랑스 민족의 특징적 발전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민족구성에 있어 구성원의 정치적 의사를 중시하는 프랑스와 이에 반해 혈연적이고 문화적 요소를 강조하는 독일 사이 구분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지속적인 사고방식의 민족적 차이가 낳은 결과로 설명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의 패전과 함께 터져 나오는 국가민족의 논리는 프랑스가 처하고 있었던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조건과 긴밀히 연결되면서 제기되고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Raphael 2003: 147).

물론 국가민족 논리 역시 동일한 하나의 논리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정치적 좌우익 사이에는 민족관에도 명백한 차이가 있었다(Mitchell 1967: 94). 반혁명적 태도를 숨기지 않았던 르낭에게 프랑스는 혁명과 필연적으로 연관될 필요가 없었다면, 혁명의 지식인들이었던 오귀스탱 티에리(Augustin Thierry), 프랑수아 기조(François Guizot), 쥘 미슐레(Jules Michelet) 등은 프랑스 민족을 프랑스 혁명의 유산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혁명을 경험한 알사스와 로렌인들은 그들의 주관적 민족귀속의식으로 프랑스인이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프로이센에 의한 알사스-로렌 합병의 부당성에 대한 주장에서는 모든 세력들이 일치하고 있었다.

이런 국가민족 논리와 함께 프랑스적 정체성은 때로 문화적 우월의식과 연결되어 제기되기도 했다. 프랑스는 로마문화에 뿌리를 둔 “위대한 조국”이란 생각이 드물지 않게 거

19) 심지어 르낭은 전쟁에 패하고 나서 프랑스 지성계가 충격에 빠졌을 때에도 프로이센의 전형을 좇아 프랑스 문화가 쇠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Gödde-Baumanns 1971: 8f.).

론되고 있었다. 민족국가가 “최고의 선(善)(Summum Bonum)”이란 생각 하에 알사스-로렌의 합병을 정당화하는 독일 역사가 테오도르 몸젠(Theodor Mommsen)에 맞선 뤼스텔 드 쿨랑주(Fustel de Coulanges)가 그러했다. 스트라스부르 대학에 재직한 바 있었던 그는 게르만적 전통에 연결되는 독일과 로마적 전통에 연결되는 프랑스를 대비시켰다(Coulanges 1988: 17). 이런 대비는 곧 바로 고대 프랑스의 정치제도사가 가진 우월성을 전제하면서 고대 게르만적 요소, 독일적 요소에 맞서는 프랑스적인 요소를 우월한 것으로 평가하게 하였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 알사스와 로렌은 역사적으로 독일민족의 야만적 강탈에 의해 조국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일부였으며, 프로이센에 의한 합병과 함께 그 역사가 재현되고 있었다(Coulanges 1988: 18).

#### 4.2 프랑스 역사가들의 갈리아 문화론과 알사스, 로렌

앞서 살펴본 프랑스의 ‘국가민족’과 독일의 ‘문화민족’ 구분은 유럽 민족주의가 보여준 대표적인 유형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이 때 동유럽형 민족주의의 전형으로 독일의 ‘문화민족’은 과거지향적, 비합리적, 반개인주의적임에 비해, 서유럽형의 프랑스 ‘국가민족’은 민족귀속성을 구성원의 자발적 의지에서 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적, 합리적, 미래지향적임이 강조된다.<sup>20)</sup> 만일 이에 따른다면 프랑스 민족주의는 이성과 계몽의 보편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것이며, 이에 비해 독일 문화민족은 혈연적, 문화적 기반을 달리 하는 민족에 대해 적대적이며 비합리주의적 요소를 가진 것으로 대비된다.

그러나 이런 대비된 인식은 지나친 유형화의 결과임에 틀림없다. 흔히 주장되듯이 프랑수아인들의 민족의식이 “국가민족” 의식에 의해 전일적으로 규정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 물론 오늘날 게르만인으로 이어지는 독일민족에 대한 주장이 그러하듯이 갈리아인의 역사로 이어지는 프랑스적 본질을 거론할 정도로 무분별한 인종론을 거론할 역사가는 없다. 그러나 19세기 근대 역사서술의 확립과정에서 명백한 종족적 기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프랑수아인의 조상을 갈리아인의 전통에서 찾고자 하는 모습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sup>21)</sup>

물론 갈리아를 프랑스와 일치시키는 사고가 19세기 독일 지식인들에게 나타나는 인종적 발상과 동일한 모습은 아니었다. 오히려 쥘 미슐레같은 이는 심지어 프랑크족으로 이어지는 프랑스에서의 게르만적 전통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Brühl 1990: 26). 그러나 19세기 초반부터 갈리아인의 역사와 프랑스의 역사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전통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 결과 역사가 카미유 줄리앙(Camille Jullian)은 “갈리아의 위대한 조국”을 주장하기에 이르렀으며, 3000년에 이르는 갈리아인에서 시작된 프랑스의 역사를 거론하기에 이르렀다.<sup>22)</sup> 아울러 1828년에 발간된 한 책에서 아메데 티에리(Amédeé Thierry)는 프랑수아사에서 갈리아인의 역할을 명백히 주장하고 있었다(Brühl 1990: 30).

그리고 이런 인식에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은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이었다. 전쟁과 함께 프랑크족-게르만족으로 이어지는 전통에 대한 생각은 반독일적 정서와 함께 프랑

20) 프리드리히 마이네케의 ‘문화민족’과 ‘국가민족’ 구분을 발전시킨 이런 유형론의 대표적 예는 한스 콘(Hans Kohn)이 보여주었다. 다음 글을 참고하라. Heinrich A. Winkler, (1985), “Einleitung. Der Nationalismus und seine Funktion”, *Nationalismus*, Königstein, 5-46, 여기서는 p.7f.

21) 이런 인식의 역사는 16세기 인문주의의 시기까지 거슬러 오르는 기원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 책을 보라. (Brühl 1990: 32-75)

22) 물론 그가 갈리아인을 프랑수아인과 직접 연계시키는 단순논리에만 머물렀다고 보기 힘든 점도 있다. 그는 프랑크인과 프랑수아인을 동일시하기도 했다. 앞의 책을 참고하라. (Brühl 1990: 25).

스에서 게르만 이전의 갈리아인에 대한 전통에 대한 강조에 의해 대체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게르만의 대이동 시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절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전술한 뷔스텔 드 쿨랑주였다. 1891년 사후 출간된 『게르만의 침략과 제국의 종말(L'Invasion germanique et la fin de l'Empire)』에서 그는 프랑스사에서의 게르만적 요소에 대한 과대평가를 거부하였으며(Brühl 1990: 27), 이런 태도가 1871년 프로이센에 대한 패배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물론 뷔스텔 드 쿨랑주나 카미유 줄리앙을 인종론자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게르만문화와 대비되는 갈리아-로만으로 이어지는 문화의 연속성을 주장한 뷔스텔 드 쿨랑주의 논리는 사실 갈리아라는 종족적 기원에 대한 주장보다는 라인강으로 구분되는 자연지리적 단위의 형성과 그를 따라 형성된 근대 정치적 귀속의식을 더 강조하고 있었다(Raphael 2003: 149). 아울러 카미유 줄리앙 역시 갈리아적 기원을 논함에 있어서도 종족적 다양성을 전제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세 개의 갈리아부족으로 이루어진 켈트인이 이루고 있었던 자연지리적 단위를 상정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이른 정치문화적 귀속의식을 프랑스 민족형성의 중심요소로 평가하였다(Raphael 2003: 161f.). 이로써 라인강을 경계로 한 프랑스 민족의 정치적 경계가 형성되고 있었다는 점에 그는 주목하고 있었다.

또한 이런 발상은 프랑스를 이루는 “자연적 경계”라는 인식에 의해 보완되고 있었다. 사실 프랑스의 경계가 대서양, 라인강, 알프스, 피레네에 의해 정해진다는 인식은 오랜 기원을 가지는 것이었다.<sup>23)</sup> 이후 정치인, 외교관, 행정가, 군사전문가를 위시하여 역사학자 및 지리학자들에 의해 선전된 이 생각은 때로 프랑스의 영토적 팽창을 합리화하는 담론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테오도르 몸젠의 문화민족적 논리에 대항하는 뷔스텔 드 쿨랑주나 인종이나 언어가 아닌 국가적 요소에서 프랑스 민족의 연속성을 찾는 쥘 미술레에게서도 라인강이 자연적 경계라는 생각은 은연중 전제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에 기반 하여 프랑스의 민족적 정체성은 주장될 수 있었다.

이런 생각과 이어지면서 정치세력들의 민족이데올로기에서 갈리아로 이어지는 문화적 연장선을 찾고자 하는 논리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프랑스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알사스의 역사를 고대 갈리아인에게까지 소급시키는 예는 극우 정치인 모리스 바레스(Maurice Barrès)에게서도 전형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스스로 로렌지방 출신으로 반독일적 정서에 깊이 물들어 있었으며,<sup>24)</sup> 따라서 알사스-로렌 사람들이 독일인이라는 가정을 부인하고 있었다(Gildea 1994: 194f.). 물론 그는 역사학자도 아니었으며, 따라서 학술적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펴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알사스-로렌 인들은 “갈리아 계통의 로마인”이었으며, 아울러 가톨릭교도라는 점에서 독일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에 따르면 로마문화의 세례를 받지 못해 “이교도가 아니면 프로테스탄트가 되어버린” 독일인에 비해 프랑스는 가톨릭교도라는 점에서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었다(Ibid. 195).

이와 함께 19세기 후반에 들어 직업적 역사가 내부에서 알사스와 로렌의 역사를 고대로부터 이어지는 프랑스적 전통 속에서 읽어내고자 하는 모습은 너무나 일반적이었다. 이

23) 이런 생각은 프랑스 혁명시기 당통에 의해 명시적으로 주장된 바 있으며, 이후 프랑스 외교정책의 주된 원칙이 되었다(Sahlins 1990).

24) 그는 로렌에서 태어나 1870년 전쟁 당시 유년기를 보냈다. 그의 부친과 친척들이 독일인의 감옥에 수감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그의 일대기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고하라. (Gildea 1994: 193).

글이 다루는 시기 알사스-로렌에 대한 단행본을 발간한 아르센 르그렐(Arsène Legrelle) 역시 이런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1878년 발표한 한 글에서 그는 알사스의 고중세사를 켈트인과 로마인들의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들이 독일인 이전에 살고 있었다는 점을 들으므로 역사적 기득권을 명백히 하였다(Legrelle 1878: 326f.).

이어서 그는 843년 알사스가 로트링겐에 귀속되고, 이어 동프랑크 제국의 수중에 떨어지는 것을 이 지역에 대한 독일인들의 “폭력적 점령”으로 간주하였다(Legrelle 1881: 38f.). 아울러 그는 중세의 알사스를 자치상태로 파악함으로써 이 지역이 독일제국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평가절하하려 하였다. 나아가 그는 중세 알사스의 이런 상황이 이후 프랑스의 개입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그는 리셜리외 시기의 알사스 합병정책을 전쟁 피해의 대가이자 안보정책상 합리화될 수 있는 것이라 봄으로써 알사스의 프랑스 귀속을 당연시하였다. 물론 그는 루이 14세가 팽창정책을 폈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실현불가능한 알사스의 자치요구를 고려한다면 프랑스 지배자의 선정(善政)으로 합리화될 수 있는 것이라 보았다(Ibid 330). 이와 같이 알사스와 로렌의 문제를 바라보는 프랑스 역사가의 태도는 해당지역에서 “지역과 역사”를 프랑스 민족의 입장에서 파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문화적 연속성 논리와 정치적 귀속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 5. 접경지역으로 알사스-로렌의 지역사적 발견

이미 살펴보았듯이 프랑스의 역사가들은 지역민들의 국가소속의식을 중심으로 알사스, 로렌에 대한 요구를 정당화하였다. 그리고 때로 그들의 논리는 라인강을 자연적 경계로 파악하거나 문화적 동질성을 주장하는 논리에 의해 보완되기도 했다. 이에 반해 독일 역사가들의 경우 대체로 문화에 기반한 독일민족논리가 이 지역에 대한 요구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이 글이 다루는 시기 양국 역사가들은 이런 논리로 무장한 채 서로 경쟁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알사스-로렌 지방의 민족적 귀속에 대한 이견(異見)을 좁히고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지역의 역사적이고 지리적 특징을 바라보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런 대립적 인식의 충돌 가운데서도 알사스-로렌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는 인식의 단초가 형성되고 있었다. 물론 이런 인식은 전형적인 양국 역사가가 아니라, 현지 출신이거나 현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역사가의 몫이었다. 물론 역사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알사스를 프랑스의 땅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일반적이었다. 스트라스부르 대학 출신으로 독일에서 역사학을 공부하였으며, 후일 파리의 고등연구원(Ecole des hautes études) 원장을 지낸 로돌프 로이스(Rodolphe Reuss)는 부르주아적 자유주의와 프랑스 애국주의로 무장한 알사스 부르주아의 태도를 명백히 대변하는 경우였다. 그는 프로이센의 알사스 합병을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으며, 1896년 『17세기의 알사스』, 1912년에 『알사스의 역사』에서도 이를 명백히 하였다.<sup>25)</sup>

25) 그의 부친은 스트라스부르대학 신학자이자 성경번역가 에두아르트 빌헬름 오이겐 로이스(Eduard Wilhelm Eugen Reuss)였으며, 그의 가계는 독일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독일자유주의 시인 게오르크 뷔히너(Georg Büchner)는 집안 친척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의 집안은 부르주아적 자유주의와 프랑스 애국주의로 무장한 알사스 부르주아에 속했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의 태도는 여전히 친프랑스적이었다. 독일유학 후 1869년 사강사가 된 그는 독일 대학 임용을 거절하였다. 1873년 시립도서관장을 거쳐 부친의 사후 1896년 스트라스부르를 떠났다. 그가 고향을 떠난 배경에는 아들들의 프로이센 군정집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라. (Gödde-Baummanns 1971: 334f.).

그러나 그는 앞서 살펴본 다른 역사가들과는 달리 독일과 프랑스 양국의 경계에 놓인 알사스-로렌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객관화시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우선 그는 고대사에 있어 알사스가 동서프랑크제국 양측을 오가는 역사였다고 보았으며, 15세기까지 알사스가 독일문화 중심지였다고 주장함으로써 다른 프랑스 민족주의자들의 입장과는 구분되고 있었다(Reuss 1897: 36).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교전쟁 시기부터 점차 알사스는 프랑스령으로 귀속 되었고, 결국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이런 사실이 완결 지워졌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어지는 18세기에 알사스는 더욱 프랑스화가 이루어졌으며, 프랑스 혁명과 함께 알사스의 상태는 완전히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Reuss 1907: 179). 물론 그는 다수의 알사스인이 여전히 독일문화권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알사스가 다시 독일로 재통합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다(Gödde-Baumanns 1971: 336f.).

알사스-로렌 지방은 여전히 양국 역사가들의 지극히 민감한 문제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비를 뒤로 하고 기존의 민족주의적 해석에 대비되는 인식이 등장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민족간 적대의식이 가져온 파국적 결과를 경험하고 나서야 전기가 마련되고 있었다. 물론 다시 한 번 1차 대전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린 후 알사스-로렌은 프랑스로 반환 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베르사유 조약 이후 라인강은 다시 프랑스의 국경으로 이해되었고, 프랑스 역사학 역시 이를 합리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알사스-로렌을 위시한 라인지방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며, 이를 통해 학문의 민족주의적 오용을 비판하는 연구가 나왔다.

이 글이 대상으로 삼은 시기를 넘어서지만 뤼시앵 페브르(Lucien Febvre)는 1935년 발간된 『라인강. 역사와 경제의 문제(Le Rhin. Problèmes d'histoire et d'économie)』를 통해 독일과 프랑스간 접경지역에 대한 혁신적 연구의 기원을 마련하였다(Febvre 1995). 이 책은 지금까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봉사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민족주의 역사학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접경시대 역사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1881년 출판된 이 책을 그는 무엇보다 라인강을 둘러싼 양국의 민족주의적 대립을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sup>26)</sup> 그리고 이를 위해 그는 우선 라인강이 단순히 강이란 하나의 자연적 대상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적 이해의 대상이 되어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Ibid. 12, 41f.). 그리고 그는 라인강이 16세기부터 프로이센과 프랑스 사이를 나누는 경계로 생각되기 시작했으며, 19세기에 들어 민족주의자들 사이에서 라인강을 둘러싼 치열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의도는 라인강은 독일이나 프랑스의 강이 아니요, 유럽의 강임을 발견하는데 있었다. 19, 20세기에 민족의 의미가 강조되기 시작하고 군사전략적, 지리학적 의미가 중요하게 되었지만, 사실 그 유역에 살아 온 인간들의 의지를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라인강은 민족사적 대상으로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인식의 골자였다(Ibid. 142).

물론 라인강을 바라보는 페브르의 시각에도 문제점은 있었다.<sup>27)</sup> 30년대의 정치적 상황과 그에 따른 애국주의적 논리의 영향으로 이 책 역시 독일에 대한 선입견을 담고 있었다. 그는 루이 14세의 알사스 점령을 평화정착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파악한 반면, 프로

26) 이 책은 스트라스부르에 설립된 알사스은행(Société Générale Alsacienne de Banque)의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청탁에 의해 저술되었다.

27) 페브르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위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하라. (Peter Schöttler 1994: 46-67),

이센을 “동부적 속성, 아시아적 속성을 내포한 야만성의 구현”으로 파악함으로써 부정적으로 서술하였다. 아울러 19세기 프로이센의 헤게모니 정책을 “재정복(Reconquista)”이라고 묘사함으로써 독일과 프랑스 간의 균형 잡힌 인식에 이르지 못하는 점도 보이고 있다(Ibid. 238). 그러나 그는 라인강을 다루면서 “경계지대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를 중심에 놓고 보고 있으며, 그들의 심성이 결코 인종이나 민족 혹은 언어와 같은 장기적 요소에 의해 좌우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단기적 정치적 대결에 의해 좌우되는 것도 아님을 밝히고 있다(Schöttler 1995: 241). 이런 시각은 이미 오늘날 화해와 공존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관점을 30년대 초반에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6. 나오며

지난 양 세기에 걸친 알사스와 로렌의 역사는 민족간 경계지역으로 겪어야 했던 지난한 과거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이 지역을 둘러싼 갈등은 근대국민 국가로 프랑스와 독일이 낳은 경쟁적 민족주의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구학계에서도 접경지역 문제를 둘러싼 민족사 인식 내지 민족사 서술 일반, 특히 접경지역을 둘러싼 민족사 인식이 비판적 고찰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며,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이런 인식의 국가간 차이는 비교적 명백히 존재하고 있다.<sup>2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럽 역사학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족사 인식의 태도에 대한 재조명과 문제제기는 확실히 그 의미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접근은 알사스와 로렌의 역사를 다루었던 프랑스나 독일 역사가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민족에 대한 신화와 그로부터 파생된 각종의 갈등을 낳은 책임이 상당한 정도 역사가에게 돌아가는 것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확실히 이 글에서도 밝혔듯이 독일과 프랑스의 역사가들에 의한 양 지방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중세 이래의 양 지방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자기 민족사의 영역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자기중심적으로 발견하는 과정이었으며,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수십 년에 걸쳐 한 지역의 인간들을 비극의 수렁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이와 같은 역사가들을 위시한 지식인들의 민족사 인식과 그를 위한 의도적 구성의 노력이 인접한 민족간 공존의 파괴를 초래하는 위험한 구성행위였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려 하였다. 프랑스-프로이센전쟁과 함께 알사스와 로렌 지역에 대한 급격한 시각의 변화와 그를 위한 온갖 합리화 기제를 발견하기 위한 역사가들의 노력은 배타적 민족주의의 본격화과정에서 생겨난 것이었다. 이는 자국 역사의 확립과정이자 동시에 타자의 배제 과정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학술적 작업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으며, 여러 가지 논리로 무장하고 있었으나 사실 현실적 이해관계가 작용한 정치적 행위였다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 프랑스의 지식인들 역시 국가민족이라는 논리 아래 알사스와 로렌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으나, 이 역시도 민족국가의 이해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알사스와 로렌을 둘러싼 “비극적 역사”는 실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민족의 차이가 낳은 갈등이라기 보다는, “구성된 민족적 정체성의 배타성과 그로 인한 적대적 타자관”(Jeismann 1992: 94)

28)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양국 역사학의 비판적 조망에도 다소간 차이가 있음은 확실해 보인다. 전후 비판적 민족주의 연구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는 독일 역사학이 비교적 심도 있게 민족사 서술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면, 프랑스의 역사학은 이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를 아직도 결여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Thadden 1991).

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민족사 서술을 통해 나타나는 역사가들의 의도적인 “구성행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특히 최근 유럽에서는 큰 의미를 지니는 일이다. 오늘날 국민국가의 헤게모니의 균열을 거론하고, 그것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늘고 있다. 이런 현 시점에서 민족사 서술이 가지는 의미와 한계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은 제기하는 일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최근 유럽에서는 “유럽의 지역화, 지역의 유럽화”라는 말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물론 성급하게 근대 국민국가의 시대가 지나고, 또 다른 차원의 유럽과 지역이 인간들의 공동생활 공간으로 전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 그러나 민족간 경계지역을 둘러싼 오랜 분쟁을 뒤로 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존의 공간을 모색하고 있는 점은 커다란 변화임에 틀림없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이미 20세기 초반에 민족과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서려 하고 있었던 역사가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흥미롭다. 그들은 민족간 경계지대를 둘러싸고 그 지역의 역사와 지리를 민족적 관점에서 발견하려던 태도를 넘어 지역 자체를 중심으로 공존의 공간을 발견하려 하고 있었다. 그들이 비록 과국을 향하는 국민국가의 민족주의적 경향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들의 노력에서 너무나 “현실적”이며, 따라서 너무나 “이성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확실히 그들이 발견한 지역정체성은 민족적 정체성의 대립을 상당히 완화시켜 줄 완충제 구실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오늘날 동아시아의 분쟁지역을 둘러싸고 그런 인식의 여지를 찾는 것은 과연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허무맹랑한 생각이고, 따라서 가능하지 않은 비현실적 사고에 불과한 것일까?

#### (참고문헌)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민족의 기원과 전파』  
볼프강 슈말레, (박용희 역), (2006), 『유럽의 재발견』, 서울: 을유문화사.  
패트릭 J. 기어리 (이종경 역), (2004), 『민족의 신화, 그 위험한 유산』, 서울: 지식의 풍경.  
임지현 외, (2004), 『근대의 국경, 역사의 변경』, 서울: 휴머니스트.

Alter, Peter, (Hrsg.) (1994), Nationalismus. Dokumente zur Geschichte und Gegenwart eines Phänomens, München.

Arndt, Ernst Moritz, (1813), “Der Rhein, Deutschlands Strom, aber nicht Deutschlands Grenze”, in: 같은 이, Ernst Moritz Arndts ausgewählte Werke, Bd.13 (Leipzig o.J.), in: Peter Alter 1994: 190f.

Bebel, August, (1889), “Reichstagsrede”, in: Stenographische Berichte über die Verhandlungen des Deutschen Reichstages 7, Legislaturperiode, 5. Session, Bd.1, p.44f. in: Peter Alter 1994: 204f.

Brühl, Carlrichard, (1990), Deutschland-Frankreich. Die Geburt zweier Völker, Köln,

Bußmann, Walter, (1981), Treitschke. Sein Welt- und Geschichtsbild, Göttingen

Conrad, Christoph/ Conrad, Sebastian (Hrsg.), (2002), Die Nation schreiben. Geschichtswissenschaft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Göttingen.

Coulanges, Fustel de, (1988), Der antike Staat. Kult, Recht und Institutionen Griechenlands und Roms, Stuttgart. (프랑스어판 원제목은 다음과 같다. ‘La Cité antique



- (1875)'. 한국어 번역본이 최근 출간되었다. 뷔스텔 드 쿨랑주, (김응중 역), (2000), 『고대 도시』, 서울: 아카넷.)
- Dorpalen, Andreas, (1972) "Heinrich von Treitschke",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vol.7, No.3/4, 21-35.
- Erbe, Michael (Hrsg.) (2002), *Das Elsass. Historische Landschaft im Wandel der Zeiten*, Stuttgart.
- Faulenbach, Bernd, (Hrsg.)(1974), *Geschichtswissenschaft in Deutschland*, München.
- Febvre, Lucien, *Der Rhein und seine Geschichte* (Frankfurt a.M. 1995). (원제목은 *Le Rhin. Problèmes d'histoire et d'économie* (Paris, 1935).
- Elisabeth Fehrenbach, (1970), "Die Reichsgründung in der deutschen Geschichtsschreibung", Theodor Schieder (Hrsg.), *Reichsgründung 1870-71*, Stuttgart, 259-290,
- Gall, Lothar, (1970) "Das Problem Elsaß-Lothringen", Theodor Schieder (Hrsg.), *Reichsgründung 1870-71*, Stuttgart, 366-385.
- Gildea, Robert, (1994), *The Past in French History*, London.
- Gödde-Baumanns, (1971), *Deutsche Geschichte in französischer Sicht. Die französische Historiographie von 1871 bis 1918. Über die Geschichte Deutschlands und die deutsch-französische Beziehungen in der Neuzeit*, Wiesbaden.
- Jakob, Karl, (1905), *Bismarck und die Erwerbung Elsaß-Lothringens 1870/71*, Leipzig.
- Jeismann, Michael (1992), *Das Vaterland der Feinde. Studien zum nationalen Feindbegriff und Selbstverständnis in Deutschland und Frankreich 1792-1918*, Stuttgart.
- Jones, Stuart, (1999), "Taine and the nation-state", Stefan Berger (ed.), *Writing national histories. Western Europe since 1800*, London, 85-96.
- Kallscheuer, Otto/ Claus Leggewie, "Deutsche Kulturnation versus französische Staatsnation? Eine ideengeschichtliche Stichprobe", Helmut Berding (Hrsg.), *Nationales Bewußtsein und kollektive Identität. Studien zur Entwicklung des kollektiven Bewußtseins in der Neuzeit 2* (Frankfurt a.M. 1994), p.112-162.
- Legrelle, Arsène, (1878), *Louis XIV et Strasbourg, Essai sur la politique de France*, Paris.
- , (1881), *La Prusse et la France*, Paris.
- Ludwig, Klemens, (1995), "Elsässer", *Ethnische Minderheiten in Europa*, München, p.140-144.
- Mommsen, Wolfgang, (1974), *Max Weber und die deutsche Politik 1890-1920*, Tübingen.
- Mieck, Ikja, "Deutschlands Westgrenze", Alexander Demandt (Hrsg.) (1993), *Deutschlands Grenzen in der Geschichte*, München,
- Mitchell, Allan, (1967), "German History in France after 1870",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2, No.3, p.81-100.
- Parisse, Michel (Hrsg.) (1984), *Lothringen - Geschichte eines Grenzlandes*,

Saarbrücken.

Pletsch, Alfred, (2002), Grenzregionen zwischen Frankreich und Deutschland: Das Beispiel des Elsass und der Oberrheinregion. In: [www.Deuframat.de](http://www.Deuframat.de).

Raphael, Lutz, (2003), "Zwischen Agrarromantik und empirischem Rationalismus. Wege der französischen Siedlungsgeographie und Agrargeschichte(1880-1945)", Volksgeschichten im Europa der Zwischenkriegszeit, M. Hettling, Göttingen, 147-172.

Renan, Ernest (1882), "Qu'est-ce qu'une nation?", John Hutchinson (ed.), (1994), Nationalism, Oxford 17f. (한글판 제목은 다음과 같다. 에르네스트 르낭, (신행선 역), (2002), 『민족이란 무엇인가』, 서울: 책세상.)

Reuss, Rodolphe, (1897), L'Alsace au XVII siècle, Paris.

---, (1907), Histoire d'Alsace, Paris.

Sahlins, Peter, (1990), "Natural Frontiers Revisited: France's Boundaries since the Seventeenth Century",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95, No.5, 1423-1451,

Schöttler, Peter, (1994), "Der Rhein als Konfliktthema zwscen deutschen und französschen Historikern in der Zwischenkriegszeit", 1999. Zeitschrift für Sozialgeschichte des 20. und 21. Jahrhunderts 9, Heft 2, 46-67.

Sieburg, Heinz-Otto, (1954), Deutschland und Frankreich in der Geschichtsschreibung des 19. Jahrhunderts, Wiesbaden.

Sieburg, Heinz-Otto, "Aspekte deutscher Historiographie über Frankreich zwischen 1871 und 1914. Strömungen, Modellfälle und Tendenzen", Heiner Timmermann (Hrsg.) (1987), Geschichtsschreibung zwischen Wissenschaft und Politik. Deutschland - Frankreich - Polen im 19. und 20. Jahrhunderts, Saarbrücken, 223-242.

Thadden, Rudolf von, (1991), "Aufbau nationaler Identität. Deutschland und Frankreich im Vergleich", B. Giesen (Hrsg.), Nationale und kulturelle Identität, Frankfurt a.M.

Treitschke, Heinrich von, (1913), Briefe, hrsg. v. M. Cornicelius, Leipzig, Bd.2,

---, (1867), Historische und Politische Aufsätze, Leipzig, 3.Aufl.,

---, (1870), "Was fordern wir von Frankreich", in: Preußische Jahrbücher 26, H.3, 367-409.

---, (1879), Zehn Jahre Deutsche Kämpfe, 2.Aufl., Berlin.

Weber, Max, (1980), Wirtschaft und Gesellschaft, 5. Aufl. Tübingen.

Wehler, Hans-Ulrich, (1970), Krisenherde des Kaiserreichs 1871-1918, Göttingen.